



16일 국립광주박물관 세미나실에서 박물관 관계자와 전주이씨 양도공파 후손들이 전남도지정문화재자료 제146호인 '이천우 영정'(사진 왼쪽)과 '회맹록 목판' 등을 살펴보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이응도 목판' 탁본

‘이천우 영정’ ‘이응도 목판’ 광주에

전주이씨 양도공파 종회 유물 20점 국립광주박물관 기증

여말선초 초상화 연구 귀중한 자료

태조 이성계의 형인 윤계의 둘째 아들 이천우(?~1417년)가 관직에서 물러나자 태종 이방원은 기름진 땅과 노비 80명을 하사했다.

하지만 이천우는 매사냥을 즐기는 임금에 정사를 그르칠까, 땅 대신 태종이 사냥에 쓰던 두 마리의 매를 달라고 간청한다.

이에 탄복한 태종이 사신을 따라온 중국 화공에게 이천우의 초상과 두 마리의 매를 그리게 했다. 아까는 매를 줄 수는 없지만 이천우와 매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도록 초상화와 매 그림을 함께 선물한 것이다.

조선 초기 신하와 임금의 지극한 충성과 신의가 담긴 유물이 일반에

공개됐다. 특히 한국박물관 개관 100주년을 맞은 올해 전국에서 유물 기증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역 한 문종이 조상의 숨결이 살아있는 소중한 문화재를 박물관에 기증해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중)은 16일 오전 전주이씨 양도공파(종회장 이용주)로부터 전남도지정문화재자료 제146호인 '이천우 영정' '이응도(二鷹圖) 목판' '회맹록(會盟錄) 목판' 등의 유물 20점을 기증받고, 이를 공개했다.

'이천우 영정'은 여말선초의 초상화 양식과 명나라의 영향을 받았던 당시 의복을 연구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조선 개국 초기 왕족이나 고위 관료를 그린 초상화는 국내에 4점밖에 없을 정도로 희귀 자료다.

이 영정에는 인물의 시선이 왼쪽을 바라보고 있고, 양손을 소매 속에 넣은 당시 초상화의 특징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두 마리 송골매가 사실적으로 묘사된 '이응도 목판'도 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든 유물이다. 매의 발에는 호사스런 '시치미'가 달려있고, 한 쪽 다리를 들고 앉는 매의 특징이 사실적으로 묘사돼 있다.

'이천우 초상'은 원본이 일부 손상돼 조선후기에 옮겨 그린 작품이며, '이응도 목판'은 이응도가 남자 1747년 나무에 그림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다.

또 '회맹록 목판'은 1402년 66명의 공신이 태종에게 충성을 맹세한 문서인 '회맹록'이 남아 1792년 이를 목판에 새긴 유물이다.

그동안 영랑 묘장사원에 보관됐던 이들 유물은 후손들이 관리를 했는데, 최근 문종 회의를 통해 문화재공유 차원에서 박물관에 기증됐다.

이용주 종회장은 "문종의 보물 같은 유물인데, 관리가 힘들고 도난 우려도 있었다"면서 "많은 국민이 나눠 볼 수 있도록 문종 차원에서 조건 없이 내놓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박물관은 이들 유물을 조선 초기 역사 연구에 활용하고, 오는 2010년 전시장 내부 공사가 마무리되면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시인 109명이 말하는 최고의 詩

“이 한 구절이 화살처럼 쏘았다”

“움직이는 비애(悲哀)를 알고 있느냐.”

김수영 시인의 시 ‘비’ 속, 이 한 구절은 장석주 시인과 천양희 시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장석주 시인은 “비의 운동역학에 ‘비에’를 슬쩍 얹는 솜씨”에 감탄하며 “이 시구가 마음에 화살처럼 쏘았다”고 했으며 천양희 시인은 “움직이는 비애가 내면을 훑고 지나갈 때 나는 시(詩)라는 위대한 병을 철저히 앓았다”고 회고했다.

시인들이 뽑은 ‘내 영혼에 남아 있는 시의 한 구절’이 수록된 ‘벼락치듯 나를 전율시킨 최고의 시구’(문학세계사 펴냄)가 출간됐다.

이번 책은 지난 2007년 가을 계간 ‘시인세계’의 기

나희덕 시인



“욕망이여 입을 열여라 그 속에서/사랑을 발견하겠다”
(김수영의 ‘사랑의 변주곡’)

장석주 시인



“비가 오고 있다/여보/움직이는 비애(悲哀)를 알고 있느냐”
(김수영의 ‘비’)

문태준 시인



“새들은 우리를 지어 지니가면서 이곳을 무덤으로 덮는다/관 뚜껑을 미는 힘으로 나는 하늘을 바라본다”
(이성복의 ‘아주 흐린 날의 기억’)

나희덕·장석주·문태준 시인 등

‘벼락치듯 나를 전율시킨...’ 출간

회특집 질문에 대한 시인들의 답이 주가되었다.

특히 이번에 단행본으로 출간되면서 박찬호씨의 그림과 칼라 아이덴의 사진작품이 더해져 독자의 눈과 가슴속에 더욱 큰 시적 울림을 전하게 됐다.

김남조, 김종길, 강은교, 신달자, 문인수, 안도현, 강정, 황병승 등 시인 109명이 자신을 움직인 한국 현대 시 구절과 그에 얽힌 이야기들을 소개했다.

나희덕 시인은 김수영의 ‘사랑의 변주곡’ 중 “욕망이여 입을 열여라 그 속에서 / 사랑을 발견하겠다”는 구절이 “흔란도가 낮은, 그리하여 폭력적 질서에 갇혀 있는 나의 시들을 화들짝 깨우는 말”이라고 말했으며, ‘구름의 파수병’ 중 한 구절을 꼽은 장석주 시인은 “시가 두려워질 때마다 김수영을 읽는다”고 고백했다.

또 서정주(9명), 정지용(7명), 이상, 백석(이상 6명), 윤동주, 김소월 시인 등의 시 구절도 많은 시인에

게 깊은 울림을 줬다.

생존 시인 가운데에는 이성복 시인(4명)이 많이 거론됐다. 문태준 시인은 군부대 화장실에서 즐겨 읽은 이성복 시인의 시 ‘아주 흐린 날의 기억’ 중 “관 뚜껑을 미는 힘으로 나는 하늘을 바라본다”는 구절을 통해 “나는 널 안에 매장된 나를 보았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서울 대학로 최고 화제 작품

‘민들레 바람되어’ 광주 온다

25·26일 5·18기념문화센터

지난해말부터 지금까지 서울 대학로에서 가장 화제를 뿌린 작품은 단연 연극 ‘민들레 바람되어’였다.

스타급 배우들인 조재현·정웅인·안내상이 트리플 캐스팅된 ‘민들레 바람되어’는 한 남자의 인생 이야기로 연일 매진 사례를 기록하며 4만여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했다. 특히 30대 이상의 부부 관객 점유율이 70%를 넘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민들레 바람되어’가 드디어 광주 팬들을 만난다. 25일 오후 4시·7시, 26일 오후 3시·6시 5·18기념문화센터.

‘민들레 바람되어’는 일찍 아내를 떠나보낸 한 남자의 인생과 부부애, 가족 이야기를 이 시대 부부들이 공감할 만한 보편적인 이야기로 풀어진 작품이다.

주인공은 평범한 남자 안중기. 운명 같은 인연이라 믿었던 결혼 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잦은 싸움으로 마음



조재현

정웅인

은 괴로워져 간다. 비록 많이 늦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아내의 묘소에서 나누는 부부의 엇갈린 대화와 관객들의 마음을 울려나게 하는 작품이다.

이번 광주 공연에는 30대부터 60대까지 폭넓은 연기를 선보이는 남편 안중기 역으로 조재현과 정웅인이 출연한다. 또 TV에서도 활발히 활동중인 이원하가 함께 호흡을 맞추며 여주인공 오지영 역으로는 동아연극상 연기상을 수상한 이지하가 출연한다. 더블 캐스팅이므로 출연 일정을 확인할 것.

티켓 가격 4만 5천원, 3만 5천원. 문의 1588-0766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 충장로 ‘희경루’ 복원

30억 투입...우체국 인근에

2015 하계U대회 상징물로

지난 1866년대 광주시 동구 충장로에 있었던 광주의 누정인 희경루(喜慶樓)가 복원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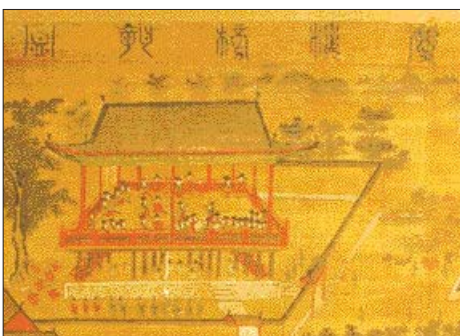
광주시는 “역사·문화도시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선조들의 문화 유산인 희경루를 복원해 광주의 대표적인 옛 건축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고 15일 밝혔다.

희경루는 지난 1451년 충장로 광주 우체국

인근에 세워졌으나, 지난 1866년 이후 자취를 감춘 광주의 누정으로 알려져 있다. 문헌상으로는 지난 1567년 제작된 희경루 방화도(喜慶樓榜會圖)〈사진〉, 신숙주가 남긴 희경루기(喜慶樓記) 등에 건립 배경 등이 수록돼 있다.

희경루기에 따르면 “이 고을 사람 중에 사나운 자가 있어 광주목(光州牧)에서 강등돼 무진군(戊珍郡)이 됐다. 마을 주민들이 임금께 상소해 다시 원래 이름을 찾은 것을 기념해 희경루라 명명했다”고 유래를 밝히고 있다.

당시 희경루는 팔작지붕으로 정면 5칸, 측면



4칸 규모로 마을 사람들이 연회나, 위락장소로 쓰였다. 시는 희경루가 ‘함께 기뻐하고 서로 축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감안,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를 기념하는 상징물로 복원할 계획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2009 서울대 12명 합격
광주학원가 대표 브랜드

▶ 13년의 역사와 전통
▶ 중1~고3까지
▶ 국·영·수 단과전문

국민학원 074-0101

초·중·고 국어, 독서논술, 작문고
중·고등 수리영역
중·고등 탐구영역
고등부 영어영역

국민영어학원 072-0403

초·중·고 영어수업도 대안학교도 합니다

원어민 1:1 영어회화

영어회화, 꼭 해야 합니다

· 200년 교육 전통으로 100여명 26명을 확보
· 광주유니버시아드 외국인 유치를 위해
· 여수 엑스포 2009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입학형태 1:1, 1:2, 1:3, 1:4)

영구필수영어학원 070-7433-0594

전남교육청 지정

김재규정철학원의
활력 신화는
계속됩니다!

광주김재규정철학원

웹기반 JAVA
개발전문가 교육생모집
2009.08.10~2010.02.09

전일국비 지원

개강 Start!
8월 10일

계좌제 1인당 100만원 지원!
국비교육비 지원

중앙 IT 직업전문학교
0223-0050